

아침의 여유 '브런치 콘서트'로 즐기세요

여수 예술마루 '음악가의 뮤즈' 18일
광주문예회관 9일 '랩소디 페스티벌'
문화전당 10일 서일영·안남근
24일 현대무용가 안은미 무대



여수 예술마루가 오는 18일부터 강현주·김일송의 연주·해설과 함께 '브런치 콘서트'를 연다. (여수예술마루 제공)



서일영 안남근 안은미

‘여유롭게 즐기는 아침 공연.’
오전에 열리는 공연을 뜻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프랑스어 마탱(Matin-아침)에서 나왔다. 부담없이 클래식 공연을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해 여수 예술마루와 광주문예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4월 공연을 알차게 마련했다.

광주문예회관의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올해 두번째 이야기는 ‘랩소디 페스티벌’이다. 9일 오전 11시 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브람스, 바르토크 그리고 퀴이 씨 내리간 ‘음악의 서사시’ 랩소디를 소개한다. 김이곤씨의 해설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 피아니스트 방기수가 이들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 43 번중곡 중 18번’으로 시작해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2번 울림 단조’, 브람스 ‘랩소디 2번’, 바르토크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랩소디 1번’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락과 아가펠라, 오페라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퀴이 ‘보헤미안 랩소디’로 끝을 맺는다. 전석 1만원(커피·머핀 포함). 문의 062-613-8235.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오후 첫 브런치 콘서트를 연다.

개관 이듬해인 2013년부터 시작한 브런치 콘서트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강현주(순천대 교수)와 공연 칼럼니스트 김일송이 해설자로 나선다.

이들은 ‘음악가들의 뮤즈들’이라는 주제로 연주 4차례에 걸쳐 연주를 결집한 강연을 펼친다. 18일에는 독일 작곡가 슈만과 클라라 부부, 그리고 그의 제자 브람스의 삼각관계를 다룬 ‘라인강의 뮤즈, 클라라와 슈만’이 진행된다.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와 클라라 슈만의 ‘저녁의 음악 중 야상곡’, ‘로맨스 가단조’를 듣고 브람스와 슈만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가단조 F.A.E.’를 바이올리니스트 안지윤과의 2중주로 감상한다. 메조 소프라노 추희명은 슈만의 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미르텐의 꽃’, 브람

스 ‘자장가’ 등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무곡 1·2·4·5번’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6월27일에는 ‘비엔나의 팜파탈, 알마와 말라’가 이어지고 ‘몽마르트의 첫사랑, 수잔 발라동과 사티’ (9월26일), ‘레닌그라드의 흥행사, 디아길레프와 스트라빈스키’ (12월5일)가 진행된다.

전석 1만원이며 공연 티켓과 함께 식사권을 제공하는 ‘컨트리맨즈 패키지’ (2인 6만원)도 판매한다. 문의 1544-7669.

10월·24일 오전 11시 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리는 ‘ACC 브런치 콘서트’에서는 역동적인 현대무용을 즐길 수 있다.

먼저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일영·안남근이 10일 무대를 꾸민다.

‘댄서 하우스’라는 제목을 내건 이날 공연에서는 ‘무용수의 집’이란 주제로 두 무용수의 춤과 진술한 삶 이야기가 독백처럼 펼쳐진다.

서일영과 안남근은 각각 스트리트(Street) 댄스와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무용수다.

엠넷 프로그램 ‘댄싱9’에 출연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서일영은 현대무용가 김설진이 이끄는 ‘무비’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남근은 5·6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컨템포러리무용 시니어 남자부에서 2등을 수상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장애인의 날’ (20일)을 맞아 오는 24일 ‘불편하지 않은’ 공연을 선보인다. 그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독일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정신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젝트 ‘1분 59초’로 무대를 채운다.

안은미가 지난 1988년 창단한 ‘안은미컴퍼니’는 2006년 민간 무용단 최초로 유럽 투어공연을 펼쳤고 2011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일박식 2만5000원·사이드식 1만원(커피·샌드위치 포함).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광주 대인동의 ‘김넷과’ 부근을 지나 다 보면 대형 설치작품이 눈에 띈다. 이 어룡을 낀 어린 아이가 강아지 인형을 안고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는 모습이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그림 아래는 ‘너에게 기대어’라는 제목과 성혜림이라는 작가명이 함께 쓰여 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입안에 침이 고일 만큼 상큼해 보이는 청포도가 시선을 끈다. 아니나 다를까. 작품명도 ‘프레쉬’ (Fresh·강민정 작)이다. 대인시장 국밥집으로 향하는 어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바라본다.

구 도심인 이곳에 ‘그림’이 등장한 건 지난해 봄부터. 인근에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2동을 건설중인 (주)영무건

재정장은 고민 끝에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59)씨에게 SOS를 보냈다. 서울의 한복판을 회색빛 공사판이 아닌 아름다운 화폭으로 바꾸는 가림막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다.

“은 국민이 ‘광화문의 달’을 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세계를 꿈꾸게 하자.” 강 작가는 폭 41m, 높이 27m의 설치작품 ‘광화문에 뜬 달’을 내걸어 광화문 일대를 야외 갤러리로 바꾸는 마법을 부렸다. 특히 조명이 켜지는 야간에는 둥근 보름달을 연상시켰다. 달 향아리와 인왕산 등으로 광화문을 형성한 한 작품은 가로x세로 크기가 60cm인 나무합판 2611개를 붙여 만들었는데, 작품 하단에는 광화문에서 실제

‘전일빌딩 갤러리’

설이 젊은 작가 5명의 작품을 대형 스티커로 실사출력해 판넬로 설치한 것이다. 지저분한 공사현장을 덮는 공사장 가림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민과 행인들은 칙칙하고 난잡한 공사장 대신 개성 넘치는 가림막 덕분에 ‘꽤 아닌’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15일,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지난 2006년 광화문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원공사에 들어간지 3년 8개월만이다. 공사장 가림막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다운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다. 특히 금강송으로 뼈대를 갈아 입은 목조 광화문은 615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말이 3년 8개월이지 복원 공사로 인한 불편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삭막한 공사현장이 문제였다. 당시 유홍준 문화

사용됐던 3개의 문이 설치됐다.

공사가 마무리된 2009년 9월까지 약 3년 반동안 전시된 ‘광화문에 뜬 달’은 광화문의 복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울의 명물로 떠올랐다. 일부 시민들은 오랜동안 함께 해온 ‘명작’이 철거되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가림막에 설치할 디자인을 공모중이다. 1968년 12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지어진 전일빌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장이자 호남의 상징인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디자인이 선정되면 전일빌딩 가림막은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기까지 1년 동안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전일빌딩 공사장 가림막이 예술이 흐르는 ‘열린 캔버스’가 됐으면 좋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일곡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멘토링 개최

고재종 시인 초청 오늘 고려고서
광주시 북구(청장 문인) 일곡도서관에서는 3일 북구 삼각동 고려고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멘토링 ‘다시, 책을 읽자’를 개최한다.

‘다시, 책을 읽자’는 청소년들에게 독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작가와 청소년이 직접 대면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고재종 시인과 함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마음, 가족과 이웃, 사랑, 생명, 노동, 평

화 등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시를 읊미하고 시가 주는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또한 시낭송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고재종 시인은 담양 출신으로 제11회 신동엽문학상, 제16회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작가회의 이사 등을 역임했다.

‘첫사랑’, ‘날랜 사랑’, ‘상처의 향기’ 등 다수의 시가 종교교 국어 및 문학교과서에 수록돼 청소년들에게는 친숙한 시인이다.

문의 062-410-689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정보지 ‘문화마실’ 핸드북 형식 발간

매월 광주의 주요 문화예술행사, 지역작가, 문화공간 등을 소개하는 문화예술관광정보지 ‘문화마실’이 핸드북 형식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마실’ 4월호부터 판형을 가로 11cm, 세로 26cm 크기의 핸드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작부수 역시 지난해보다 월 1000부가 늘어난 8000부를 제작한다.

특히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7월17일~28일)과 2019 광주 FINA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기간(8월5일~18일)인 7월호와 8월호는 월 1만부씩 영문본도 함께 발간돼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마실은 문화향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제작됐다.

한편 문화마실은 광주시청, 광주문화재단 등 시내 주요 배포처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문화보듬10000운동’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가입은 전화(062-670-742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2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발굴 30일까지 공모

“숨은 무형유산물을 찾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능과 예능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30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아리랑’, ‘김치 담그기’처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 7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전통 공연·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전통

기술 분야(공예, 건축, 미술 등) ▲전통 지식 분야(민간약학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등) ▲구전 전통과 표현 분야(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전통 생활 관습분야(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사회적 의식·의례 분야(민간 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전통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분야 등이다.

문의 042-481-49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